

NATO 16개 회원국의 정상(頂上)들은 1978년 12월 중거리 핵무기 도입을 위한 회담을 가진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개최하기 위해 금년 7월초 런던에서 회합을 가졌다. 앞의 회의가 냉전시대중 특히 심각한 단계를 유발하였었다면, 이번 회의는 그 종말을 알리는 것이다.

처음의 것이 전쟁이나 지배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한 반면, 현재의 것은 유럽대륙의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나토의 주요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조지왕조풍의 랭카스터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6인의 각국 정상들은 어렵고도 상반되는 임무에 직면하였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극복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자국의 위상과 관련하여 상처받은 소련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토의 존속을 위한 회원국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2가지의 명백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하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더욱 보수적인 그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토의 군사력 특히 통일 독일의 군사력이 엄격히 제한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 국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토는 냉전시대의 종료후에도 군사적으로는 축소될지라도 필수적인 임무가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존속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간단하지만 신중하게 선정된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지난 40년간 소련으로부터의 침략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성된 방어적인 조직에서 유럽전체의 안정을 보장할 보편적인 안보기구로 변신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체의 재래식 및 핵전력을 감축하고 군 배치를 변화시키며 과거의 적국과의 협력을 통해 나토의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았다. 수개월 앞서 나토의 관리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위원회 모임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원하는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성명서 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력(盡力)하였다. 항상 그러하듯이 회의 직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의 본 안(案)이 나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회담 수일전 15명의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최초의 초안은 폐기된채 각 정상들은 그들의 의견을 제기하고, 내용을 토의하였다. 실무진들이 내용을 다듬으면서 외무장관들도 참여하여 마침내 런던선언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어려운 방향을 잡아야만 했다. 비록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이 나토 특히 통일독일의 장래 군사적 능력의 한계에 대해 재확인받기는 해야 했지만, 충실하고 중요한 이 우방국을 「색다르게」 보는 것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런던선언에서는 정치적인 안보사항을 강조하고 나토에서 향후 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재래식 및 핵전력의 감축약속으로 분명해졌다. 통일독일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다른 사람이 못가네

평소 업무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능률면에서도 3명의 몫을 거뜬히 해내 조만간 중견간부로 발탁될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원이 썩썩거리며 사장실로 뛰어 들었다.

「사장님. 지난번에 연기된 제 휴가가 이번엔 아예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네』

「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지금까지 저는 거의 세사람 몫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점일세. 자네가 휴가를 가면 다른 3명이 휴가를 못가지 않는가』

의 나토귀속은 안보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CFE(유럽내 재래식전력)조약 서명에서 독일의 전력수준에 관한 보장이 주어졌다.

각국 정상들은 나토의 원래 목적이 회원국의 영토보호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나, 「새로운 유럽내」에서는 모든 국가의 안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나토가 모두를 위한 안보기구임을 천명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국가들과 불가침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의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中·東部 유럽의 대표들을 브뤼셀로 초청하여 북대서양협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토에 정식 연락사무소를 두도록 하였다.

군비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상들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재래식무기 협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고, 현재 이러한 협상이 제한된 무기부문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병력수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회담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어느 나라도 불균형적인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제한할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의대로 해석할수 있겠으나, 인구 8천만명으로 서부유럽 최강국이 될 장차의 독일과 인구 2억8천명과 3만개의 핵탄두로 유럽대륙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소련을 염두에 둔 것임은 틀림없다.

정상들은 소련군이 동구에서 철수함으로써 나토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 작아지고 기동성과 융통성이 있는 나토의 다국적군이 기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전방방어전략을 피하고 유연대응전략을 수정한 새로운 군사전략은 「유럽의 혁신적인 변화에 일치하는」 개정된 전력계획에 근거를 두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나토의 정상들은 「핵 및 재래식전력의 적절한 배합」이라는 방침을 유지하

면서,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랜스(Lance) 단거리 탄도유도탄 현대화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에 현대화된 핵포탄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뿐만 아니라 소련의 호혜성에 따라 유럽에서의 완전 폐기를 재보증할수 있게 되었다.

단거리 핵전력(SNF)에 대한 협상은 CFE조약의 서명후 바로 시작될 것이다. 더우기 비록 핵무기가 전쟁역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계속 수행하겠지만, 정상들은 「핵전력이 진실로 최후에 의존하는 무기」라는 새로운 나토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각국 정상들은 유럽만의 조직으로 돌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조직을 축하하였다. 그들은 금년말 CFE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파리에서 CSCE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면서, 인권과 경제 및 환경협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회원국 규범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소규모의 사무국이 관리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진 회의의 정기일정을 제시하였고, 선거를 관리할 체계, 분쟁을 방지할 기구, 유럽의회로 불릴 회의조직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기구의 위상(位相)에 새로운 정치구도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그 효과는 진행속도와 강렬함에서 극적인 것이었다. 몇주일후 사무총장은 모스크바방문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런던선언의 기초를 개인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절정에 이른 것은 뒤를 이어 소련을 찾은 콜 수상의 도착과 함께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주말을 보낸 이후 두 정상은 10개항의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소련은 독일의 통일을 수용하고 희망하는 어느 국가와도 결합할 주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장래 37만명으로의 독일병력 제한과 3~4년 이내 독일영토에서 소련군의 철수등 안전보장책이 제시되었다. 실로 유럽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換) <Miltech 90/8>